

미래 직업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의 효율적인 사회화 촉진방안

길 임 주*

초 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세계에 잘 적응하도록 효율적인 사회화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미래사회의 특성을 직업세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망하여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청소년의 사회화의 특징과 사회화에 장애가 되는 청소년 배제의 관점을 분석하고,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청소년 사회참여의 효과는 개인적 역량개발을 도모하여 직업세계에 입문하도록 도와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청소년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순조로운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임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성인으로서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미래사회의 특성상 청소년의 개념을 지위 인정을 위한 사회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야함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역량강화모델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참여 정책에의 미래지향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사회참여, 미래의 직업세계, 청소년 역량강화모델,
'청소년'의 미래사회적 개념, 공동체회폐 운동

*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전공

I. 서 론

글로벌 사회에서의 생존경쟁과 변화하는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비하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미래 사회는 직업사회의 변화가 전개되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준이나 지위 개념이 모호해지고 특히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인력개발의 효율성면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에 대해 검토하여 방향과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제로 고령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은 2002년 10%에서 2030년 36%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화촉진 연구 및 모델은 교육을 통한 사회의 적응 및 관습의 내면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학교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기존의 사회조직에 진입하여 생산력 있는 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미래 직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과 그 역량강화모델은 기성사회에의 적응 뿐 아니라 청소년의 주도하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과 지도력개발, 글로벌사회에의 적응, 의미있는 공동체사회의 창출 등 새로운 과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화 촉진방안을 마련한다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미래의 직업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회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첫째로 미래사회의 변화 중 특히 직업사회의 변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망하면서 청소년의 사회화의 특징과 청소년의 효율적인 사회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되는 관점을 분석해보고, 두 번째로 청소년의 사회화 촉진을 위한 사회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권의 정의를 재조망해보고 공동체화폐 운동 중 하나인 타임달러 운동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의 사례를 들어 효과를 분석하면서 청소년 역량강화모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인으로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미래사회의 특성상 청소년의 개념을 지위인정을 위한 사회적 개념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여함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참여 정책에의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회의 변화의 특성

1) 직업세계의 변화

최근의 지식정보화 혁명은 현대사회의 조직과 생활양식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과 생활양식이 등장할 것이다. 정보화 혁명의 변화가운데서 직업세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고 한다(Toffler, 2006). 미래의 직업사회에 대비해야하는 청소년의 사회화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1세기의 특징으로 논의되는 일반적인 변화는 과학적 방법과 생물학의 탐구가 주된 주제로 등장하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사회변동의 속도면에서의 격동성, 물질적 풍요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 사회제도나 사회구조(가족, 교육, 정치, 경제, 종교 등)의 기능 약화, 인간의 능력이 생산성의 변수가 되는 인간화의 시대, 정보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국가개념보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화를 들 수 있다(배규한, 2000). 이러한 특징과 관련된 문제점 또는 쟁점으로는 식수, 기후개발 및 환경보전의 문제, 다원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리즘, 세계적 정보화의 융합 및 한계점 등이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Society)등에 의해 논의되며 전세계적 과제를 채택하여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의 특징에 따른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적 변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정보화시대의 혁명적 기술의 변화로 인한 고용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경영의 자동화는 정보화 기술과 네트워크안의 소통방식을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람의 근접성 자체를 점차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미래의 회사는 노동의 필요를 현재보다 점차로 덜 느끼게 될 것으로 조망되며, 정규직은 임시직이나 계약직, 시간제 고용직으로 계속 전환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형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된 추세¹⁾로 그 변화의 양상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증가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고용률과 정규직 비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한 연구(장지연 외, 2008)에 의하면 정규직 비율의 증감은 경기변동에 순응적이고 정적인 양상을 보여 비정규직 고용확대는 유연성확보의 차원보다 인건비절감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제시하였다²⁾. 또 중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담당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업종과 규모가 다르더라도 비정규직 인력활용방식에서는 많은 유사성이 나타나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는 소폭으로 예측하지만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장지연 외, 2008). 즉 기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과거의 고용형태처럼 안정적인 평생고용형태를 취하여 핵심 기능을 맡기고, 그 외의 운영은 아웃소싱하거나 계약직 형태의 고용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대체를 이룰 것이다.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보수를 적게 받는 직업이 많아질 것이며, 이는 다시 적은 보수의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자영업을 선호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OECD내 타 국가는 다른 양상을 보일수도 있다³⁾. 또 시공을 초월한 많은 새

- 1) 통계청이 2008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58만명(임금노동자의 53.6%)이고 정규직은 741만명(46.4%)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명, 2008년 3월에는 858만명으로 감소했다. 비율로는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로 감소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변화추이다.
- 2) 만약 기업이 기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위한 노동인력의 유연성확보 추진의 결과가 비정규직화라면, 정규직의 비율은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규직 비율의 증감은 고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경기순응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장지연 외, 2008).
- 3) <각주 표 1> 종사 지위별 취업자 비율(2005)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영국	스웨덴
임금근로자	66.4	84.8	73.8	92.5	87.0	90.2
고용주	7.3	2.6	5.1	7.4	12.7	9.6
자영업자	19.7	7.7	14.4	-	-	0.0
가족종사자	6.6	4.4	6.7	0.1	0.4	0.2
분류불가	-	0.8	-	-	-	-

(주: 미국과 영국의 자영업자는 고용주에 포함.

출처: ILO <http://laborsta.ilo.org/>. 대만, 한국노동연구원)

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면대면 의사소통이 필요한 조직에 소속되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둘째, 소수의 안정적인 평생고용형태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점차로 한사람이 파트타임형태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되는 ‘포트폴리오 근로자(Portfolio worker)’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포트폴리오 근로자⁴⁾’는 Handy(1995)가 사용한 용어로, 직업의 형태나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여러 형태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다시 업무의 분배면에서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데 즉 기업이 소수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포트폴리오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살려 여러 형태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포트폴리오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원하는 직업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업무의 분배면에서의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 직업사회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으로는 첫째, 미래의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미래의 직업은 전 세대와 비교할 때 삶을 지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형태도 아닐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닐 것이며, 그 대신 취미와 지역사회

〈각주 표 2〉 자영업자 비율추이(고용주포함)

	1990	1995	2000	2006
한국	39.5	36.8	36.8	32.8
일본	22.4	18.3	16.6	13.8
미국	8.8	8.5	7.4	7.4

(출처: OECD Factbook, 2008)

주요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일인당 GDP가 증가하면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1991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7만 7천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OECD 선진국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과 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 일인당 GDP가 1만달러에서 1만 5천달러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비율이 3.8%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0.9%감소하였다. 선진국들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통계를 내지 않는데 이는 자영업자가 대체로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4)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투잡(two jobs) 또는 겹벌이, 멀티잡(multi-jobs)의 용어들도 포트폴리오 근로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직업은 전 세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열정과 헌신을 쏟아 부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포트폴리오의 하나로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부분 중 하나이며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Hakim(1994)은 조직에의 소속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의 직업인들을 ‘자영업자(self-employed)’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영업자’란 변화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미래 사회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미로 이러한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미래의 직업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즉 직업이 생계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직업 활동을 개인적 능력의 개발과 사회적 기여의 확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8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직업가치관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장흥근 외, 2007)에 의하면 이 시기를 통틀어 외재적 가치지향이 내재적 가치지향을 상회하고 있으나 추세면에서 보면 외재적 가치지향은 75.12%에서 55.9%로 줄어든 반면 내재적 가치지향은 24.9%에서 42.4%로 늘어났다. 외재적 가치지향 내에서도 임금보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 일과 여가에 대한 선호를 1967년부터 2006년까지 40년간 시계열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가선호비율이 약 25%나 늘어났으며(장흥근 외, 2007) 이는 2004년부터 시작된 주 5일제 근무와 수업에 따라 여가시간의 선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보수를 덜 받는 직업이 보편화 되면서, 미래사회는 각 지역사회내의 사람들을 의미 있는 새로운 직업대체체계로 참여하게 하면서 동시에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한 대안으로 화폐에 기초하지 않은, 시간(time)이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경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Handy, 1995; Jones, 1995; Rifkin, 2004). Rifkin(2004)은 비인격적 매체인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이 지닌 시간과 기술,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비영리적 활동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하고, 이 활동에 축적된 시간을 개인이 필요한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은행’을 언급하였다. 화폐에 기초하지 않은 이러한 개인의 시간과 능력의 상호교환의 형태가 활성화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는 무차별적인 교환수단인 돈과는 달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이타주의를 기초로 제공해주며 지역공동체를 일구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미래의 삶이 변화할 경우 그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는 점점 더 전문화, 세분화된 직무로 개인의 삶에 성취감을 주면서 보수와 직업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의 직업이 중요하게 채택되리라 본다.

2) 성인으로의 이행기준의 변화

미래에는 전통적으로 성인의 보편적 기준으로 인식되던 결혼, 출산이 더 이상 성인임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기준자체가 더 모호해질 것이다. 성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직업은 점점 한시적 형태로 되어가고 결혼, 출산의 가족형성이 과거와 같은 보편화된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 이외에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사회적 기준 내지 전환점이 현재와 달라질 것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비혼⁵⁾ 가구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른 편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05년의 비혼 가구는 280만2636가구로 지난 10년 동안 증가율이 59%에 달한다⁶⁾.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며 현재의 성인의 기준인 안정된 직업, 결혼, 출산이 미래사회에서는 더 이상 성인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청소년 범주에 속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이 단선적 이동이 아닌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임을 말한다. 즉 생물학적 성인기는 일찍 다가오는 반면, 성인으로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회적 성인기는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청소년의 범위를 성인초기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길게 조정하든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발달 단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비혼(非婚)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6)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4.8%,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2%로 늘었다.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49%인 덴마크만 해도 1인 가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데는 30년이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독신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가 빠른 셈이다(한겨레21, 2008).

사실 청소년을 인간발달의 한 과정으로 별도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에 나타난 현상이다.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설정되고 이해하기 시작한 후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사회에서의 그들의 법적 지위, 산업 및 경제적 제반 상황, 제도교육의 변화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변화하여 왔다. Enright 등(1987)에 의하면 발달심리학 분야의 특정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경제공황시기에는 청소년들의 미성숙과 교육적 요구에 대해 기술한 반면 세계 대전기간에는 청소년들을 용병이나 노동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현대에는 성인이 되는 것은 산업사회 이전보다 점차 지연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만 관심을 갖고 더욱 의존적이 되어왔다. 이러한 성인기로의 지연현상으로 인해 미래에는 학업을 마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까지도 안정적인 취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히 결혼과 출산의 가족형성은 그 이후로 늦어질 것이며, 일부분의 사람들은 늦은 시기까지도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성인의 지위를 전혀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자녀(adult child)’ 형태에 속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의 비율이 73%에 달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Better Homes & Gardens, 2008).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기준으로는 연령상으로 청소년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독립한 성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사회적 지위가 모호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 이를 위한 새로운 발달단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청소년의 범위에 속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도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물학적 연령으로서의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⁷⁾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역량개발이

7) <각주 표 3> 청소년인구 (단위: 천명)

연 령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총 계	37,406	43,390	45,985	47,041			
0 ~ 4	3,794	3,279	3,130	2,382	-	-	-
5 ~ 9	4,420	3,862	3,444	3,169	2,382	-	-
10 ~ 14	4,440	3,991	3,064	3,465	3,169	2,382	α
15 ~ 19	4,239	4,448	3,691	3,101	3,465	3,169	2,382
20 ~ 24	4,053	4,396	3,848	3,662	3,101	3,465	3,169
*청소년 인구	12,732	12,835	10,603	10,228	9,735	9,016	5,551+ α

(출처: 통계청 1980~2005, 청소년 인구: 10~24세로 추정)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고령화시대의 국가적 생산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령층임에 틀림없다.

2. 현대 청소년의 사회화의 특징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획기적인 사회 변화는 어느 세대보다도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삶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로서 세대간의 생활양식과 의사소통의 격차를 크게 가져옴으로써 청소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 청소년의 변화된 사회화의 특징은 첫째, 사회화의 주요인면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어려서부터 인터넷 활용에 익숙해지도록 훈련받은 청소년들의 주요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획득과 교류가 위주이며, 또래 집단만이 주로 공유하는 웹사이트가 있어 그곳에 제공되는 내용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이 가능하며,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현실에서의 내용보다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화 방식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회적 이슈나 문제, 심지어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공유하기 쉬우며, 개인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의 사회화는 내용면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된 학문적 계보와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것이 아닌 진실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는 범위와 심도가 다양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어떤 종류의 지식을 이용하는가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교류하는 정보는 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동시대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며 다분히 즉각적인 오락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실성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진실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인

오도된 지식과 정보의 교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즉시적인 오락과 흥미를 위주로 한 내용에 중독되는 현상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학연이나 지연 등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상호 신뢰 및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시공을 공유한 집단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성향과 취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시공을 공유한 집단내의 구성원에 대한 상호 신뢰와 가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및 필요에 의한 도구적 인간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에게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개념도 지역단위와 상관없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동체의 개념으로 대체되거나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화의 특성은 인간성의 직접적 경험보다는 지식이나 정보를 매개로 한 도구적, 간접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조직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성향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발달시키며, 동일 집단내에 속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는 배타적이었던 과거의 사회적 특성에 비해 상호간의 성향과 취미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태도면에서 볼 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공을 초월한 청소년의 사회화는 복잡성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다문화적 이해와 국제적 시각을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이미 인터넷 교류를 통하여 복잡다단한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접근하고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전 세대의 청소년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복잡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길러지고 있으며, 국제적 문제와 글로벌 사회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길러지고 있다.

3. 청소년의 사회화 촉진에 장애가 되는 관점 : 사회적 참여/배제의 관점

미래직업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장애가 되거나 비효율적인 관점을 분석하면서 청소년의 사회참

여활동을 통한 방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대의 청소년기는 과거 산업사회에 비해 성인기로의 진입 및 지위획득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업성취에만 관심을 갖는 의존적인 기간이 되었으며, 기성세대도 이를 인정내지 묵과해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사회적 산물로서 청소년을 산업사회에 수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유예기간을 준다는 명목하에 기성사회의 참여에서 배제시키고 그 대가로 상응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및 배제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회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인 점을 인식한다면 그들에게도 상응하는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거나 위험한 일부의 청소년들 까지도 모든 사회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를 생각해 볼 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과정에서의 참여에 그들을 배제시키는 정책과 관행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네 가지 유엔아동권리 중 가장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권리가 참여권이라는 점을 청소년과 NGO 관계자들에게 실시한 조사를 기초로 밝혔다(이재연외, 2005). 또 일반적으로 시민권적 개념으로서의 참여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식되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강현아, 2006).

청소년을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첫째, 청소년들을 육성·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일정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은 어리다는 판단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인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사회참여로부터 배제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어리다는 의미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는 경험의 미숙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고와 행동양식이 기성사회에 동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때로는 위험한 시기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집단 전체의 사회화과정 및 역량개발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정책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야 하는 현시점에서 더욱 위험한 일이다. 둘째, 보호·육성의 차원이외에 청소년을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성사회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단면을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통

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의 방법은 청소년의 저항과 비행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참여의 배제가 청소년에게 가져다주는 장애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배제된 단절된 유예기간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그가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관심 및 동기의 방향을 타율적으로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소외와 좌절 속에서 보내고, 성인으로의 진입 과정에 단절을 초래하게 되어 순조롭고 연속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사회적 참여의 배제를 소외나 좌절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동기의 의식수준에 머물면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개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미래의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비해야하는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역량개발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고, 그들의 능력과 태도가 미래사회에서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화촉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4.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론적 근거

1) 확대된 시민권의 관점

Golombek(2006)은 ‘시민권’의 정의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기반을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시민권의 정의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시민권은 의무와 관련된 법적인 신분과 권리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시민권의 개념은 신분이나 권리보다 개인이 책임을 맡은 활동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일반적인 시민권의 행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들도 선량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활동을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교칙준수나 학생회 활동 등은 미래의 민주시민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

으로 단지 나이와 관련하여 주어진 활동범위가 학교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Jans(2004)는 시민권을 ‘권리’와 ‘정체성’으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은 국가보다 가정과 학교, 또래를 통해서 더 소속감과 정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체성’으로서의 시민권을 청소년 사회 참여의 기반으로 개념화하였다. 나아가서 이러한 참여로서의 시민권의 개념은 ‘사회화’의 개념도 적용이나 기존의 관습의 내면화 뿐 아니라 성인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재생성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청소년의 권리를 여성이나 소수인종의 권리 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봄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 동인(agents)라는 적극적 관점을 옹호하며 청소년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제한적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이 표현된 것이 1989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그들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능력으로 인정하였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Devine, 2002). 특히 청소년의 참여의 기회는 건전한 발달의 핵심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어른의 보호를 권리의 제한이나 참여기회의 제한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동인(agent)으로 보는 관점은 발달이론의 맥락에서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Goleman의 감성지능, 신경과학적 이론, 청소년의 도덕성발달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Golombek, 2006). 도덕성 및 다양한 지능들은 사회적 관계의 경험속에서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인식과 판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발달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중요한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사회화 과정을 촉진하여 개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여 직업사회에 입문하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이다.

2) 공동체 화폐운동의 관점

미래 직업사회의 변화 중 평생고용형태가 줄고 포트폴리오 근로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의 직업대체세계로의 필요성을 점차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미 전 세계에 확산중인 타임달러 운동의 예는 개인의 노동의 대가로 화폐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보수를 지불하며 의미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공동체 화폐운동이다. 타임달러 운동의 취지와 특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 화폐운동의 기본 개념과 장점을 분석하여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사회참여운동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공동체의 의미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그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지역성’과 ‘공동성’으로 볼 수 있다(홍동식, 박대식역, 1995). 공동체 화폐운동의 ‘공동체’는 지역성과 공동성을 기반으로 화폐가 아닌 호혜적인 거래를 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는 상호간의 교환을 존중하고,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인간집단으로 정의하였다(Lietaer, 2002).

‘타임달러(Time Dollar)’운동은 1986년 Cahn(2004)에 의해 미국에서 출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현재는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지역에 공동체 화폐운동으로 발전하였다. Cahn은 기존의 돈과 타임달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21세기에는 타임달러가 단순한 대안화폐에서 벗어나 공동생산 및 분배 운동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www.timebanks.org). 타임달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타임달러가 가진 호혜적 공동체의 생성이라는 가치이외에도 미국 국세청이 타임달러를 통한 거래에 면세를 하여 주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른 장점으로는 이 시스템을 출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칠판이나 종이를 사용하고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참가자 전원의 이름이 적힌 목록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가정에 타임달러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타임달러를 사용하는 가정들에서는 사람들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며, 더욱 건강해지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뉴욕에서 한 건강보험회사가 노인 건강 보험료 중 일부를 타임달러로 받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공동체의 생성과 붕괴과정을 통해 ‘공동체화폐’를 주장하는 Lietaer(2002)는 공동체의 기초는 호혜(互惠)적인 선물교환이라고 하면서, 비호혜적인 금전적 교환이 호혜적인 선물교환을 대체할 때마다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사회들이 서구세계와 상업적으로 교섭할 때마다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났으며,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아마존 토착민에게 페루의 화폐가 유통되면서 공동체가 붕괴되었고 또 미국의 생명과학 공동체가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특허제도를 만들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재료와 정보를 교환하지 않게 되고 점차로 과학 공동체가 붕괴된 점도 제시하였다. 현대의 가장 발전된 국가들에서 공동체의 붕괴가 나타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며 모든 거래가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통제에 있게 되면서 공동체가 붕괴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공동체는 정기적인 호혜적 교환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다(Lietaer, 2002).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운동은 바람직한 청소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사이버공간과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는 공간중심의 전통적 공동체의 형태를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화하게 하여 그 속에서 형성되는 '우리 의식'을 통한 연대와 협조의 관계를 공동체로 본다(성희자 외, 2006). 이러한 현대적 공동체의 개념은 전술한 현대 청소년의 사회화의 특성상 청소년의 공동체운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타임달러 운동 중 청소년참여의 사례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아울러 네트워크공동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청소년 사회참여의 효과

청소년의 사회 참여의 예로 타임달러 운동(danecountytimebank.org)중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프로그램인 미국 Wisconsin주의 Dane county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법정 (Youth court)'을 검토해보고 청소년 사회참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청소년들이 위반행위나 범죄를 처음 저질렀을 때 잘못된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대안적인 형태로, 모든 피고들과 배심원들이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고는 주로 절도나 파괴, 무질서한 행동이나 위반행위를 한 청소년 범죄자로서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고 청소년 법정의 판결을 모두 이행한 피고 청소년은 검찰의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배심원 역할의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매디슨(Madison) 시내의 학생들로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친 후 법정에 서며, 주로 미래에 법조계의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며 이 운동의 참여를 통하여 타임달러를 저축하면서 동시에 미래 희망 직종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성을 타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피고이던 청소년이 판결을 모두 이행한 후에 자원하여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타임달러를 저축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또래의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청소년 법정에 수감자나 가석방자를 참가시키기도 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과 주 법무국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범죄행정계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전 과정을 감독 진행하며, 그에 의하면 청소년 배심원들의 통찰력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예리하다고 지적하였다(Isthmus, 03/22/2007).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되며 동시에 미래의 직업세계를 조망하며 스스로의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동시에 타임달리를 쌓아갈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형태의 청소년 참여의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타임달리 운동의 취지를 받아들여 '자원봉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운동은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노년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활동의 대상자이고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미래의 목표를 향한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 따라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청소년들이 호혜적인 활동을 하는 공동체운동의 테마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가 유발하는 효과에 대해서 Checkoway(2005)는 개인적 발달의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자원과 기회가 결핍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제도의 책무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빈부의 차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국내의 공식적인 참여기구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의 성과를 네트워크형성 및 관심분야 공유를 통한 시야확장, 성격변화, 자기주도성 및 성취감 향상, 표현능력 및 논리력 향상으로 들고 있다(최창욱외, 2006).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의 효과를 전술한 현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관점 및 사회화의 특징과 관련 지워 구체적으로 파악하자면 첫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하여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경력 및 역량개발의 기회가 되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게 되며 소외와 좌절 속에 단절된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고 이를 통해 성인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순조로운 성인으로의 이행을 할 수 있다. 둘째,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습득한 호혜적인 확신은 인간

의 소유에 대한 무한한 욕망과 소비욕구를 답습하기보다,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의 습득은 도덕적 이해와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나아가서 진실성 있고 유용한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과의 판단력을 발달시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인 무의미한 지식과 오도된 정보의 교류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진실성이 검증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리라고 본다.

넷째, 청소년들은 사회 참여를 통하여 인터넷 교류를 통한 피상적이며 도구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벗어나 호혜를 통한 신뢰로운 직접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또래집단만이 공유하는 웹사이트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대와 의 교류를 경험함으로써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인간발달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성향 및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 생존경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집단과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6. 사회 참여를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모델

최근에 청소년프로그램의 관점은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이나 사회복지훈련 등의 전통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건전한 발달을 촉진시키고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청소년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확대되었다(Small & Memmo, 2004). 일반적으로 역량강화는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이 개인의 능력과 자기통제력 향상, 사회적 이해와 인권실천을 강조한다면 집단적 차원은 가족, 조직, 지역사회 등에서 일어나는 집단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력강화, 변화를 위한 상호 협동에 대한 기술을 강조한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은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변화를 막론하고 청소년 역량강화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지역

사회참여를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모델을 분석하여 청소년 사회참여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모델들은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출발점이 다르거나 강조하는 이론적 배경이 다르다. 먼저 ‘청소년 역량강화주기(Adolescent empowerment cycle)’ 모델은 청년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여 역할의식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Chinman과 Linney(1998)는 정체감 형성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역할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그들이 가지기 쉬운 방향감과 목적의 상실을 대체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둘째, 청소년발달과 역할강화 프로그램(Youth Development and Empowerment Program)’ 모델은 마약남용예방 프로그램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델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합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청소년 참가자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진 성인의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또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칭찬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성인과 청소년이 팀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강조하며 이런 팀워크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잠재적인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사회적 관심사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상호파트너 모델(Transaction Partnering model)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이 모델 역시 청소년 역량강화는 성인과 청소년간의 파트너십 형성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모델의 효과에 대해서 Cargo(2003)등은 개인적인 자율성, 정체감, 경력기회 등의 발달 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사회적으로 통합된 발달을 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청소년 역량강화교육모델(Empowerment Education Model)은 Freire의 비판적 사회연습이론을 받아들여 Wallerstein 등(2005)이 개발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들과 입원환자나 교도소 수감자와의 인생경험에 대한 대화과정, 프로그램 촉진자들이 주도하는 그룹 성찰 및 토론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비판적 성찰과 의식화, 개인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상황의 분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개인의 역할 등을 개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의 목표는 ‘연습(praxis)’에 있으며, 이것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성찰과 행동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사회참여를 통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각 프로그램은 청소년 역량개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가진 모델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 기반을 가진 모델안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개발될 때 계획, 실행, 평가의 각 단계에서 준거를 가질 수 있어 일회적인 시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준거와도 비교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술한 ‘청소년 역량강화주기(Adolescent empowerment cycle)’모델, 청소년발달과 역할강화 프로그램(Youth Development and Empowerment Program)’모델이나 상호파트너 모델(Transactional Partnering model)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개선을 위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다. Jennings 등(2006)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모델의 핵심요소로서 안정적인 환경, 의미있는 참여기회, 청소년과 성인간의 공정한 권력관계, 개인적 또는 정치사회적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 변화를 위한 사회적 참여, 개인적 역량개발과 지역사회의 발달을 위한 통합의 여섯 가지를 지적하며, 이것은 청소년 역량강화 모델 평가의 준거로서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사회참여를 통한 청소년역량강화모델을 개발하는 여러 청소년 현장과 관련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은 아직도 저조한 수준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청소년교육의 현실에서 사회참여프로그램의 시도는 아무리 내용과 취지가 바람직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호현상과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래직업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모델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관점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추진하는데 있어 뉴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최근 등장한 전통적인 정부(government)의 지배적 국가통치행위와 구별되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개념은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가 다소 다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위계적 통제 및 지배의 개념과 차별화하기 위한 용어이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 조직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남에 따라 여러 차원의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뉴거버넌스를 촉진시킨 주요 원인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라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세계화되고 분권화된 현실에서 복잡한 공공 문제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적

방식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Pierre 와 Peters (2005)의 뉴거버넌스에 대한 해석은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폐쇄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소수 정부 관료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또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청소년개발의 관점과 실천을 위주로 하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적인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에서는 적극적인 기금조성 등을 통하여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단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도 긴밀한 연계 관계를 형성하여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정권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추진강도가 변화하며 지방 청소년 행정체계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가 취약하고 강화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청소년 행정 현실에서 청소년 역량강화모형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의 공공서비스 관련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뉴거버넌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논 의 : ‘청소년’의 미래사회적 개념 정립

현대 청소년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화의 특징과 사회참여의 배제로 인한 제한된 지위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와 역기능적 현상을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뿐 만 아니라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화의 촉진을 위한 방안을 구축해나가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역할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화의 방안임을 주장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통하여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재조망이다.

이제 청소년기는 초기의 발달심리학자들의 생각처럼 인간발달의 자연스런 단계의

한 부분으로 성숙론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초기의 발달심리학자들은 20세기 초반의 산업사회에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심리를 가진 발달의 자연스런 단계로 보고, 산업사회의 대중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격동적인 심리를 가진 이 기간을 별도의 유예기간처럼 분류하여 성인의 사회와 권리에서 배제시키고 대중교육기간에서 관리함으로써 산업사회의 규율을 가르치며 면책 특권을 부여하여왔다.

그러나 정보화 혁명의 사회에서는 청소년기를 그 사회에 맞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청소년기의 권리와 지위를 새롭게 명확히 규정하고 그것에 적합한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개선은 청소년의 문화를 저항문화나 비행문화로 보고 문제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기도 하다. Checkoway와 Gutierrez(2006)는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을 ‘자원’으로서 보는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청소년을 ‘문제’로 보는 관점과 대비하였다. 그들은 청소년을 ‘문제’로 보는 관점은 인기를 추구하는 대중매체나 사회과학, 전문적 활동가들이 야기시킨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사회활동에 참여시켜 성인으로서의 이행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발달이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화 과정이 촉진될 것이다.

미래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관점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승인의 과정’이다. 성숙론자들의 견해처럼 청소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성장하는데 거쳐야 하는 격동적인 발달단계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 결정론자들처럼 문화에 따라 점진적이거나 아니면 충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이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사회적 지위로 미래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기성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해주는냐에 달린 매우 수동적인 사회적 개념이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현재의 성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해지므로, 직업이나 가족형성이외에 사회참여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 이를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성인의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려면 청소년기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역량개발은 더욱 중요하며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생물학적으로는 성인기에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어중간한 단계의 사람들을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다.

IV. 결 론

결론적으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합당한 관점은 청소년을 사회적 산물로서 정의하고 호혜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권장하도록 하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에 준비된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해주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다. 아울러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을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시키는 관점의 위험성과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공동체화폐 체제 같은 청소년 사회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역량개발과 아울러 올바른 가치관과 소유의 개념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높이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으로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이 추구하여야할 지향점이다. Checkoway(2005)는 청소년을 문제로 보지 말고 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지니면 공동체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발적 참여활동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활성화시켜야할 정책적 배려도 꾸준히 지속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청소년정책 및 그 추진 상황에서 발전적이거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청소년활동이 빠른 시일에 변화하여야 할 방향은 미래 직업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 발달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청소년수련의 관점을 살리는 것과 아울러 청소년의 경력개발활동, 사회참여활동, 다문화활동으로 그 방향이 전환해야한다. UN이나 기타 국제기구에서도 ‘청소년 개발’을 주요 청소년 정책과제로 삼아 미래발전 전략의 핵심과제로 권고하고 있는 추세이며(청소년위원회, 2005c), 국제기구 및 여러 나라의 청소년 참여정책을 통해 나타난 동향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권리의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분의 다양한 방면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성인 위주의 관점에서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 중심으로 대처하려는 소극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UN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연대를 통한 청소년 참여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문제로 인식하여 보호하고 육

성하려는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는 관점을 확대하고 그에 적합한 활동을 개발·전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 참여활동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입시위주의 제반 환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극히 제한된 숫자의 청소년만이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청소년들이 국가적 위기의 극복과 발전에 디딤돌을 마련한 것들을 기억하여 본다면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조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아(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종합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배규한(2000). 미래사회학 미래연구와 21세기설계. 서울: 나남출판
- 성희자, 진보경(2006). 농촌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7권 pp.149-170.
- 이재연·이용교·강현아(2005).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서울: 보건복지부
- 장지연·양수경·이택면·은수미(2008).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장홍근·오영훈·최지희·이동임·정윤경·서우석·이기홍(2007).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 윤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창욱·조혜영(200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위원회(2005c). 청소년참여의 현황 문제점 및 운영방안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한겨레21.(2008. 701호). 독신을 위한 나라는 없다. 박수진, 신윤동욱, 한겨레신문사 <http://h21.hani.co.kr>
- 한국경영자총협회(2007.9) 경영계.
- Better Homes and Gardens(2008, Mar). *Returning to the Nest*, by Schreiber, L.M. Meredith Corporation, IA.
- Cahn, E. (2004). No more Throw-Away People. 구미요한센터 역,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서울: 아르케출판.
- Cargo, M., Grams, G., Ottoson, J. Ward, P. & Green, L.(2003). Empowerment as foster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citizenship.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Vol.27*, pp.66-79.
- Checkoway, B.(2005). Youth Participation as Social Justice.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Fall*, pp.15-17.
- Checkoway, B. & Gutierrez, L. (2006).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Routledge. NY.
- Chinman, M.J. ,& Linney, J. A.(1998). Toward a model of adolescent empowerment:

-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Vol. 18, pp.393-413
- Devine, D.(2002). Children's citizenship and the structuring of adult-child relations in the primary school. *Childhood: A Global Journal of Child Research*, Vol. 9, pp.303-320
- Enright, R. D., Levy, V. M,& Lapsley, D. K.(1987). Do economic conditions influence how theorists view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541-559
- Golombek, S. B.(2006). Children as Citizens. In Checkoway, B. & Gutierrez, L. (2006).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Routledge. NY
- Hakim, C.(1994). *We are all Self-employed : How to take control of your career*. Berrett-koehler Publisher. CA
- Handy, C. (1995). *The empty raincoat: Making sense of the future*, Random House Inc. New York, NY
- Hart, R.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 Isthmus(Mar 22, 2007). *Getting the Community Involved* by Emma Lierley.
- Jennings, L.B., Parra-Medina, D. M., Messias, D.H. & MaLoughlin, K.(2006). Toward a Critical Social Theory of Youth Empowerment. In Checkoway, B.& Gutierrez, L. (2006).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Routledge. NY.
- Jans, M. (2004). Children as citizens: Towards a contemporary notion of child participation. *Childhood: A Global Journal of Child Research*, Vol. 11, pp.27-44.
- Jones, B. (1995). *Sleepers wake!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USA(3rd edition).
- Lietner, B. (2002). *The Future of Money: Creating New Wealth, Work and a Wiser World*. Century.
- Pierre, J. & Peters, B.G(2005). *Governing Complex Societies : Trajectories and Scenarios*. Palgrave Macmillian, NY.
- Polpllin, D.E. (1979).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 홍동식, 박대식 역(1995). *지역사회학: 이론과 접근방법*. 서울: 경문사.
- Rifkin, J. (2004).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ur force and*

-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Tarcher/Penguin, New York, NY.
- Small, S. & Memmo, M. (2004). Comtemporary models of youth development and problem preven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terms, concepts and models. *Family Relations*, Vol. 53, pp.3-11.
- The Ithaca Journal(Mar 12, 2008). *Time bank spreads skills around*, Linda Stout, Itaca, NY.
- Toffler, E. (2006). *Revolutionary Wealth*, 김종웅 역, 부의 미래. 서울: 청림출판.
- Wallerstein, N., Sanchez-Merki, V., & Verlade, L.(2005). Freirian Praxis in health education and community organizing: A case study of an adolescent prevention program. In M. Minkler(Ed.), *Community Organzing and Community Building for Health*(2nd,)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Dane County Time bank, www.danecountytimebank.org
- Time Banks, www.timebanks.org

ABSTRACT

The Future of Youth Participation in Work and Other Activities as Vehicles of Socialization

Gil, Im-Joo*

This study is a portrait of the changing world of future work and the participation of youth within i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ays to enhance the socialization for youth to prepare for their future involvement in work. A number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youth socialization were delineated, and this was followed by a theoretical outline of youth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focuses on how youth participation can empower their ability to enhance their careers as well as how they can contribute to their community, which in turn can lead them to acquire maturity and other attributes of adulthood.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can reduce youth alienation, discouragement and frustration, smoothing their path to adulthood. An example of a youth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 based upon the Time Dollar movement is introduced to emphasize the advantages of the youth participation and suggest an appropriate youth empowerment model. Possible directions of a policy aimed at Korean youth participation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Youth Participation, The Future of Works, Youth Empowerment Model, Futuristic Perspective for the concept of Youth, Time Dollar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7월 22일, 심사완료일 : 11월 7일

* dept. of adolescent counseling psychology Dongseo University

